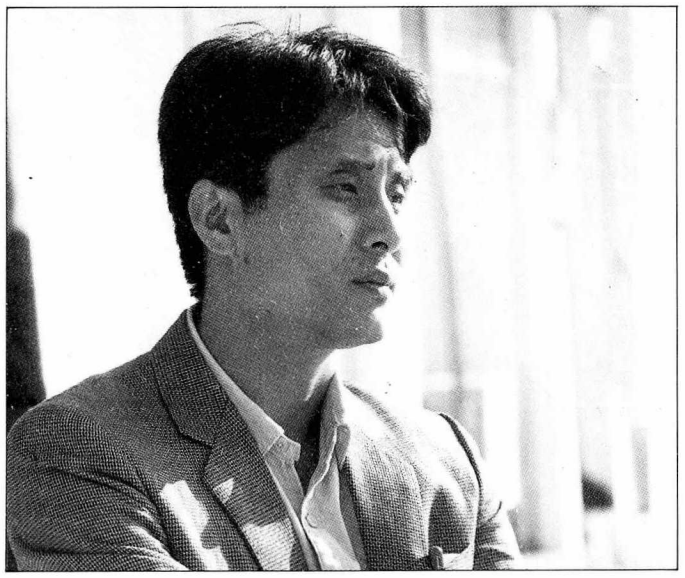


# 영화애호가들 위한 입문적 가이드북
# 용어해설서 영화변천사까지 두루 망라

## ——「영화에 대하여 알고싶은…」 낸 구회영씨

**이 책 그 사람**

이제 '영화'이야기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제거리가 돼버린 듯하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언제부터인가 소극장이나 비디오가게에서 빌려다본 영화 이야기로 가득하다. 세상을 읽는 진지한 탐색의 한 방법으로서건 남들과의 대화에 끼기 위한 지적 허영에서건 이미 '영화보기'는 벼르고 별러서 비로소 한번 보던 고전적인 '재미'를 넘어 이제는 외면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심리적 '부담'으로까지 다가온다. 굳이 극장나들이를 하지 않더라도 집앞 비디오가게만 가면 웬만한 최신작은 다 나와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조금의 품만 들이면 못볼 영화가 없는 서울은 그야말로 비디오 '천국'인 셈이다.

영화조감독 구회영(36)씨가 펴낸 「영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한울)은 '명화'와 '악화'가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지는 비디오테이프의 폭죽 속에서 제대로 영상문화의 '천국'에 이르게 하는 가이드북에 해당한다. "영화광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영화나 비디오에 바쳐지는 시간을 보다 유용하게 보내고 싶은 애호가들이나, 홍콩영화나 오락영화에 열광적으로 탐닉하는 청소년들에게 영화에 관한 기초적이고 특징적인 현상들을 설명해줌으로써 좀더 체계적으로 알고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입문서쯤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이 아주 평이하다거나, 쉽게 읽혀넘어가는 것만은 아니다. 몽타쥬, 딮 포커스, 내러티브, 스펙터클 등과 같은 기초적인 영화용어의 정확한 설명에서부터 19C말에 발명돼 1백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영화의 변천사에 대한 특징적인 약술, 그리고 웨스턴, 갱스터, 멜러드라마, 뮤지컬, SF, 컬트 등과 같은 영화의 장르연구 등 모두 12개의 커다란 주제를 저자 나름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항간에 유통되는 영화에 관한 '일반상식'을 깨뜨리는 새로운 서술이 눈에 띄기도 한다.

대학시절 이미 소형영화를 여러편 찍기도 했던 '인류학' 전공의 그는 인류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 유학을 떠난 미국에서 부모몰래 슬쩍 영화로 '월장'을 해버렸다고 한다. 남들은 영화감독으로 입신하여 이미 명성을 날리고 있는 지금 그는 영화판의 궂은일은 도맡아 하는 이름좋은 '조감독'에 불과하지만 영화산업의 첨단지식과 기술이 집중되어있는 그 나라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호흡한 영화쟁이 가운데 하나다. 언젠가는 자신의 손으로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어보리라는 꿈은 그에게도 예외는 아닌데, 그는 직업적으로 같은 영화를 3번쯤 본다. 맨처음은 영화제작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시사회 영화이고, 두번째는 익명의 관객이 되어 영화관 한구석에 혼자 앉아서, 나머지 한번은 비디오로 틀어놓고 실눈을 뜨고 '뜯어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감상법은 불특정관객들과 뜨거운 일체감을 느끼며 보는 두번째 경우. "영화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가겠다고 '머리'로 보는 관객들이나 홍콩영화나 갱스터라고 무조건 도외시하는 '엄숙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느낀다"는 그는 남들이 영화를 보며 새로운 세계를 엿보는 것과는 달리, 영화를 많이보면 세상이 "더 잘 보인다"고 말하는 천생 '영화인생'이다.

——정혜옥 기자

# 성장제일주의 추세속 '인간경영' 제시
# 인간존중의 기업경영과 철학 강조

## ——「인간경영학」 펴낸 장만기씨

**이 책 그 사람**

먹고 사는 일의 궁핍함을 벗어던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불과 이삼십년전의 우리 모습은 고도성장이라는 경제적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어느덧 과소비로 대표되는 향락문화의 주역으로 바뀌었다. 그 세월동안, 부지런한 인적 자원의 역할은 이렇다할 부존자원 하나 없는 상황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고,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도 꼽히곤 한다.

70년대, 그야말로 발전의 박차를 가하던 성장제일주의의 파고 속에서 기업경영과 연관된 '인간경영'의 방법론을 제시해 특히 경제계의 관심을 모았던 장만기씨(54)가 최근 「인간경영학」(보성사)을 펴내 또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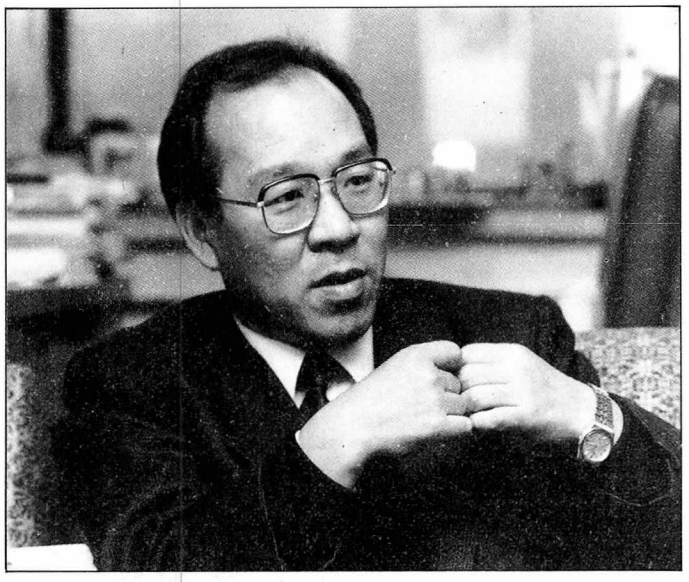
'신인류 신기업 성공 메카니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근래 새로운 출판조류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경영 관련도서이면서도, 그 무게중심이 기업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영역이 보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장만기씨는 '인간자원'개발의 극대화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경영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의 진원지를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물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조직이든지 그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가치관에 입각한 개인적 목표와 이에 연관된 조직인으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실현해나갈 때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조직을 기업으로 환치한다면, 기업경영자는 사원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도정보사회의 기업인들은 특히 독립심과 참여동기가 강해진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그들의 욕망을 민감하게 탐지해내는 '인간경영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위논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성취동기와 리더에 관한 이 이론은 따지고 보면 15년만에 완결된 체계로 햇빛을 본 셈이다. 지난 76년부터 한 경제신문에 연재했던 칼럼 '인간경영'이 이 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 당시에도 호평을 받았던 이론이지만 지금에 와서 더한 설득력을 갖게 된 이유를 그는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상황에서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이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는 판단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그의 이런 예견력은 74년에 설립,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의 꾸준한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그동안 7백회에 가까운 정례 세미나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하는 한편 87년부터는 전국경영자세미나를 주관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구체화시켜온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인적 인간개발과 새로운 리더쉽훈련을 위한" 교육사업체인 '리더쉽 매니지먼트'를 따로 설립하기도 한 장만기씨는 그러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비하인드맨'으로 불린다. 꼼꼼한 사전계획하에 이뤄지는 일련의 세미나를 비롯해 폭넓은 교우관계와 집안일에 있어서까지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을 치뤄내기 때문이다. ——정소연 기자



# 법학만으론 만족 못했던 詩心의 결실 우리현실 시의 프리즘으로 형상화

## —— 시집 「法속에서 詩속에서」 낸 최종고교수

이 책 그 사람

시를 발표하거나 시집을 묶어낸다는 일이 반드시 시인의 전유물일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출간된 「法속에서 詩속에서」(교육과학사)는 지난 10년을 후학양성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법학자의 첫시집이란 점에서 이채로울 수밖에 없다.

"이유를 들자면 우선 논문으로는 표현할 길 없는 한국의 법학자로서 갖는 서글픔과 갈등을 시를 빌어 나타내고 싶었고, 그 다음은 6천명이 넘는 법률가도 어쩌지 못하는, 다시말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행방이 묘연한 우리의 현실을 시란 프리즘에 걸러 고발하자는 뜻이었어요. 물론 이런 시도가 우리에겐 아직 드문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야콥 그림의 「法에 있어서 詩」 등 수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망설임도 없지 않았으나 법과 시를 향한 하나의 試論으로서 가능하다고 여겼다는 최종고교수(서울대 법대, 45)의 문학적 끼가 발하게 된 것은 이웃집 사람들 덕택이다. 국민학교 시절의 은사였던 신현득선생과 아동문학가 윤석중씨가 같은 아파트의 '이웃사촌'으로 그의 시심을 자극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그는 시와 가까웠다. 대학시절 유진오박사가 창립한 '낙산문학회'에 가입해 시화전과 공동문집을 내기도 했다는 최교수에게, 학문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은 정치인이며 법학자였던 라드브루흐. 그의 시집 「서정시 있는 삶」을 통해 시정신을 깨달았다는 최교수는 "法과 詩/ 당신은 나에게 큰 짐을 지우시는군요"(라드브루흐回想)라고.

전태일 사건으로 기억되는 고 조영래변호사를 기리는 추모시와 딸의 입학식에서 느낀 감상 등을 기록한 모두 123편의 작품을 내용에 따라 다섯부분으로 가른 이 시집에는 교수직에 있으면서 법학연구와 시심 사이를 오가며 쏟아낸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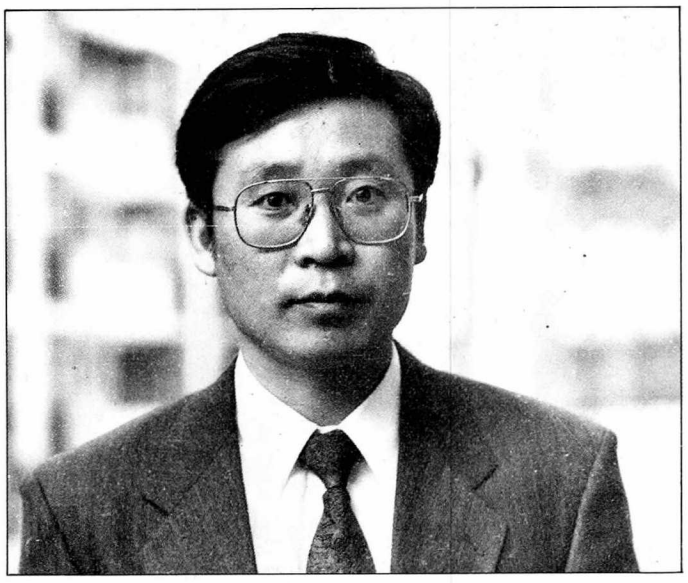
"논리적 세계인 법과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시의 세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고 또 한 지식인으로서의 내면 갈등과 고민을 기교와 형식이 앞서지 않게 표출하고자 했어요. 법이 인간과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만나게 하는 통로라면 시의 세계는 반대로 긍정적 면을 비추는 조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작법을 배울 겨를도 따로이 詩作을 위한 시간도 낼 수 없는 것이 아쉽다는 최교수는 틈틈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황동규교수의 '친절'을 고마워한다. 특히 외국여행에서 다듬은 시편을 좋게 평하는 황교수로부터 "진폭 깊은"시세계를 접했다고 전하는 그는 아무래도 자신은 법학자의 몫이 크다고 생각한다. 법학자로서 동양인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내포하는 비밀과 심미적 세계를 주로 얘기하게 된다는 그가 주목하는 것은 논리로만이 아닌 진선미 합일태로서의 법을 바라보는 일. 그중에서도 미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단다.

교수 재직기간에 비해 다작이랄 수 있는 20여권의 저서를 펴내며 법사상과 법역사서 등 읽을거리를 제공했다고 지난 시간에 대한 결산을 하며 최교수가 다짐하는 것은 미뤄왔던 법철학에 몰두하는 일이다.

"시인이면서 법률가 / 법률가이면서 역사가 / 역사가이면서 시인 / 아직은 이 셋 모두가 되고 싶다 / 조금씩이나마 모두 되고 싶다."

——최태원 기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좁쌀책' 엄지손톱만한 책에 출판기술 맘껏 발휘

## ——「금세기의 위대한…」 만든 박암종교수

이 책 그 사람

책의 세계가 주는 호기심은 아직 무한하다.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종이'의 개념을 과감히 탈피한 '전자북'이 낯선 책의 차원을 열었는가 하면, 전통적 책의 이미지를 간직하면서도 확대경을 빌지 않고는 들여다볼 수 없는 초미니의 책들이 또다른 정서를 낳는다.

얼마전 박암종교수(대유공업전문대 시각디자인과, 36)가 만들어낸 가로세로 2.5cm의 책은 우리나라에선 '좁쌀책'으로 부르는 가장 작은 책으로 기록됐다. 자줏빛 가죽을 입힌 반양장본에 「금세기의 위대한 30인의 디자이너」란 금박의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은 어른 엄지만한 크기가 앙증맞지만, 자세히 들춰보면 저자약력에서 머리말, 목차, 판권사항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책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한 나라의 가장 작은 책은 곧 그 나라의 인쇄기술의 수준을 말해줄 만큼 편집과 인쇄 전반의 정교한 기술결합이 요구됩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초미니 책을 만드는 것도 그 때문이죠. 출판에 관한 한 무구정광다라니경에서 시작되는 전통 깊은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의 인쇄기술 문제와 수준을 가늠해보는 작은 책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적으로 4.5cm, 3.5cm, 2.5cm 세종류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2.5cm 크기는 우리나라의 기계 제단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라는 설명이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 1950년대 이전에 활약한 세계적 디자이너 30인의 간략한 생애와 활동 등을 1페이지당 600자로 요약, 시대순으로 배열했다. 총 72면에 걸쳐 인물사진과 간결한 레이아웃, 몇가지 약물과 별색사용에 이르기까지 편집상의 기술은 거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 가장 작은 책은 가로세로가 각각 1mm인 영국의 「올드킹콜」이라는 책입니다. 구미에서는 이런 작은 책을 '미니어처'라 부르고, 일본은 '마메혼'(콩책), 중국에선 '巾箱本'이라는 작은 책의 전통이 각각 있었지요. 우리조상들은 옷소매에 넣고 다니면서 읽는다는 뜻으로 '袖珍本'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한개의 컴퓨터 칩에 수십만자를 저장하는 시대에 와선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지만 박암종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작은책은 우선 작고 희귀한 존재라 흥미를 유발하고, 기획에서 제작까지 일관된 책의 개성을 살릴 수 있으며, 가지고 다니기 수월해 책을 가까이하는 마음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또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

광고디자인과 편집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좁쌀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졌던 박교수가 이 책을 기획한 것은 지난 5월. 제작에 앞서 일본의 종이박물관, 인쇄국박물관, 희귀본만파는 서점 등을 둘러보는 사전조사도 철저히 했다. 막상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글씨크기의 조정, 잉크농도, 망선의 결정 등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박암종교수는 앞으로 2cm 이하의 책을 만들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박암종교수는 지금 '세계좁쌀책 전시회'에 전시중인 이 책이 세계 최고의 인쇄기술을 자랑했던 조상의 솜씨에 부끄럽지 않을 우리의 출판기술을 발전시키는" 자그마한 촉발제가 되길 희망한다.

——김지원 기자